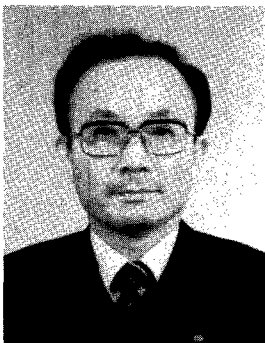


## '94 원전 운영 실적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계획예방정비기간의 조정, 정비기간의 단축 등 공급능력 증대와 고장정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국 광동원전 기술인력 지원 등 1994년은 원전기술 수출의 원년의 해로 원전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 홍 주 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처장

#### 머리말

1994년말 우리나라 원전은 총 9기가 상업가동중이고, 원자력발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고리 1호기가 상업가동된 이래 16년이 경과하였으며, 이제까지의 축적된 운전 및 정비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표준원자로의 자립 단계에 이르렀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광동원전 및 북한경수로 지원사업에까지 진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한 것을 돌이켜 보면, 짧은 국내 원전의 역사에 비하여 그 성과가 대단히 크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 원전 종사자 모두의 한결같은 믿음과 노력, 즉 원전기술은 해외 선진개발 기술이지만 우리의 기술로 완전히 소화하여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술로 승화시켜 해외시장에서 우리의 저력을 떨쳐보이려는 의지의 결실이라 본다.

우리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세계화 무대라는 무한 기술경쟁시대에서 선두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모든 관행과 제도 등 제반사항을 재점검하고 해외 우수원전과 비교·조명하면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 또는 우리의 우수한 사항을 더욱 더 계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1994년도 원자력발전 생산 능력면에서도 동일설비 공급능력하에서 1993년도(581억kWh)보다 6억 kWh가 증가한 587억kWh(영광 3호기 시운전 전력 포함)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발전량의 35.5%에 해당하며 원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나타내는 전세계적인 공용 지표인 이용률(Capacity Factor)에서도 1993년 87.2%(전세계 2위 기록)보다도 0.2% 증가한 87.4%를 달성하여 1993년도에 이어 연이어 87% 이상 수준의 이용률 달성으로 전세계 평균이용률보다도 무려 20% 가까이 상회하는 우수 원전 운영국으로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발전소별 이용률 달성실적에서는 고리 4호기가 1993년 10월부터 1994년 8월까지 이용률 102%를 기록, 세계에서 가동중인 15만kW급 이상 원전 369기 가운데 최고의 이용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NEI 95년 1월호).

발전량에 대한 원전점유비는 1989년 50.1%, 1992년 43.2%에서 1994년 35.5%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1989년 울진 2호기 준공 이후 원전의 추가 가동이 없었고, 최근의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건설공기가 짧은 복합화력과 석탄화력의 신증설에 치중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5년도에는 영광 3호기 신규 상업가동 및 영광 4호기 시운전 가동에 따른 발전량 증가 및 설비용량 증가로 원전 발전량 및 설비용량 점유비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전설비의 증장기투자계획(2006년까지)을 살펴보면, 현행 가동중인 9기의 상업운전 발전소(시설용량 7,616MWe), 시운전 시험중인 2기(영광 3, 4)의 발전소(시설용량 2,000MWe), 건설중인 5기(월성 2, 3, 4, 울진 3, 4)의 발전소(시설용량 4,100MWe), 추가 건설 예정 7기(PWR 6기, PHWR 1기)의 원자력발전소(시설용량 6,700MWe) 등 총 23기(20,416MWe)의 원자력발전소가 2006년까지 상업가동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2006년 원전설비 점유율은 37.7%를 차지, 바야흐로 원자력산업 제2의 개화기가 도래한다고 볼 수 있겠다.

작금의 경제활성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력수요의 가히 폭발적인 증가에 비하여 발전설비의 추가증설이 뒤따르지 못하는 저예비를 상향하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한 국민적 기업인념 달성을 위해서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대용량 원전 발전설비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1994년도에는 특히, 첫째로 하절기 전력수급이 도래 이전에 계획예방정비공사 시행발전소는 공기준수에 철저를 기했을 뿐만 아니라, 정비공사의 품질확보에 역점을 두어 재가동후 고장, 정지없는 안정적 발전소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했다.

둘째, 각 사업소별 취약설비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안전계통 및 고장정지 유발가능 계통 및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성능감시체제 유지로 성능저하의 사전감시로 사전제거, 개선 가능한 원인에 의한 고장정지 유발요인 사전배제에 전력하였다.

셋째, 또한 각 발전소 전문가들로 설비 전문진단팀을 구성하여 발전소별 취약분야 순회진단활동 집중강화 실시로 설비성능 개선에 치중하였으며, 주요 안전성 관련 전자제어설비의 운전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전환경(습도, 온도조건 개선 등) 개선에 주력하여 1994년도에는 전자제어카드에 의한 정지유발은 거의 근절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대용량 원전설비 운영관리에 종사하는 전 종업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1994년도의 경우 고장정지 건수가 1993년도 14건에 비해 6건이나 감소한 8건에 그쳤으며, 고장정지시 신속한 복구능력기술 배양으로 1993년도 29시간/건보다 감소한 25시간/건으로 전력공급 안정화 및 극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94년 8월 최대 전력수요는 26,696 MWe로서 전년대비 20.7%가 증가하였으며 공급예비율은 최저 2.8%까지 감소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예비율인 1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하절기 전력수급 특별대책의 성공적인 실행과 전력피크시

(표 1) 원자력발전 설비용량 추이

(단위 : MW)

구 분 / 연 도	'88	'89	'90	'91	'92	'93	'94
총 설비용량	19,944	20,997	21,021	21,111	24,120	27,654	28,750
원전설비용량	6,666	7,616	7,616	7,616	7,616	7,616	7,616
원전 점유율	33.3%	36.3%	36.2%	36.1%	31.6%	27.5%	26.5%

수용가의 전력소비 절전운동 캠페인의 효과적인 전개로 제한송전 없는 양질의 전력을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었다.

하절기 7~8월 동안 원전 전력공급 기여도는 계획발전량 106억kWh보다 3억kWh가 많은 109억kWh로서 계획대비 103%의 달성률을 기록하여 저예비율 시기에 원전설비에 의한 전력생산 기여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안전관리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방사성폐기물의 감용을 위한 감용설비의 도입·설치로 바야호로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발생량 저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체적으로는 세계 최우수 원전국을 목표로 기술개발 등 지속적인 감축노력을 펼쳐 나가고 있다.

원전 운영실태의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원전 환경방사능 감시단말기를 인근 주변지역 군청 상황실 등에 설치하여 주민 누구나 항시 원전 운영에 따른 환경상태 변화추이를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원전안전성에 대한 백번의 구두설명보다 나은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원전홍보분야로는 과거의 틀에 박힌 홍보방법에서 좀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모색하여 과학교사 및 차세대 꿈나무들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여론 주도인사 및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사전 발굴하여 적극 대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역주민과 원전과는 공존공생 관계라는 의식의 자연스런 확산 노력에 치중하였고, 특히 후속원전 민원다발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 홍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지역지원사업으로는 지역 특산물, 농산물의 직원 구매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원전상을 부각시키는 데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본다.

**발전량과 이용률**

1994년도 원자력발전량은 586억5천만kWh로서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35.5%를 공급하였다.

이는 당초 계획을 약 16억kWh 초

과하는 발전량이며 전년보다 5억1천만kWh를 더 발전하였다.

원자력발전량의 점유율은 1987년도에 53.1%를 기록한 이래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울진 2호기의 '1989년도 준공 이후 원전의 신규 준공이 없었고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발맞추어 건설기간이 비교적 짧은 복합화력, 석탄화력 등의 지속적인 증설로 1993년도 40.3%에서 1994년도 35.5%로 더욱 감소되었다.

이러한 원전 점유율 하락은 1995년도 영광 3호기 정상가동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4년도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안전성에 문제없이 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함에 따라 평균 이용률이 87.4%로써 국내원전 운영사상 최고의 이용률을 기록하였으며, 1993년도 세계 2위를 기록하였던 이용률 87.2%보다 0.2%가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1989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연속 75%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게 되었다.

1994년도에 90%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한 원자력발전소는 고리 4호기(93.2%), 영광 1호기(100%)의 2개 호기이다.

이러한 고이용률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대용량 원전(950MWe급)의 고장정지 건수(3건)의 최소화 노력 및 고장정지시 신속한 복구 노력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또한 대용량 원전에서의 철저한 계획예방정비 사전준비 철저와 시간대별 주공정관리 시행 등으로 정비 품질 확보와 공기단축의 노력으로 전력생산 극대화가 가능하였다고 본다.

셋째, 950MWe급 원전에서는 장주기 원전연료(18개월 주기 연료)의 도입 사용 정착화로 연중 계획예방정비 없이 전출력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 또 다른 큰 기여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올진 1호기의 1994년도에는 한주

기 무정지운전 달성 발전소가 탄생하지 않았으나 역대 발전소의 실적을 살펴보면, 1992년 4월 2일부터 1993년 2월 11일까지 310일간 무정지 연속운전, 올진 2호기의 1991년 1월 16일부터 1993년 11월 23일까지 909일간 2주기 무정지 연속운전, 영광 1호기의 395일 1주기 무정지운전 최장 기록 수립 등 국내 원전의 한주기 무정지 연속운전기록은 총 7회를 달성하였다.

〈표 2〉 원자력발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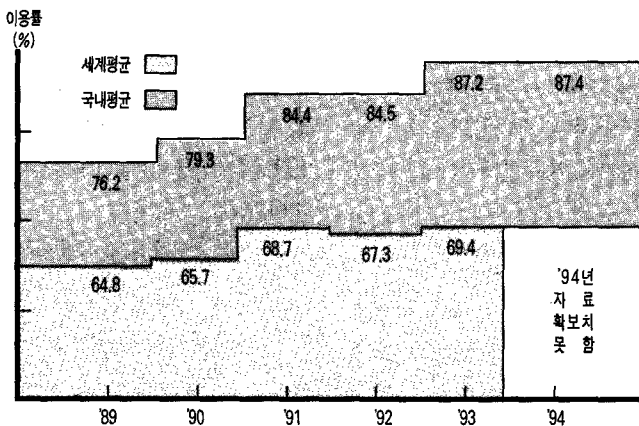
(단위 : MWh)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총 발전량	85,462	97,472	107,670	118,618	130,963	144,440	164,993
원전 발전량	40,101	47,365	52,887	56,311	56,530	58,138	58,651
원전 점유율	46%	50.1%	49.1%	47.5%	43.2%	40.3%	35.5%

〈표 3〉 연도별 원전 이용률 및 세계평균과의 비교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국내 평균	73.0	76.2	79.3	84.4	84.5	87.2	87.4
세계 평균	65.9	64.8	65.7	68.7	67.3	69.4	-



〈그림 1〉 국내 및 세계 원전이용률 추이

고장정지

총 9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1994년도에 발생한 고장정지 건수는 8건으로서, 기당 0.9건으로 나타났으나 원자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 정지는 한건도 없었으며 발전소 종사자와 지역주민 및 주변환경으로의 영향도 없었다.

고장정지 8건의 원인을 분류해 보면, 주중기 차단밸브와 주급수 조절밸브상의 성능저하에 기인한 고장 4건, 주발전기 관련 전기설비 고장에 의한 정지 1건, 터빈 부속 윤활유 계통 및 원자로 계통상의 문제에 기인한 고장정지 각 1건씩 및 인적실수에 의한 정지 1건이 발생하였다.

1994년도에도 고장정지 최소화를 위해 안전 및 정지 관련 전자회로기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고장정지 사전예방에 힘썼으며, 예방점검과 품질향상을 위해 첨단 정밀점검장비인 ICT(In-Circuit Tester)를 이용, 전자회로기판의 소자단위까지 성능을 점검하고 취약부품을 적기에 교체했다.

아울러, 말단부하측의 각종 계전기 등의 성능점검 확인을 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자체 개발활용 등 고장정지 예방노력을 강화한 결과 전자제어설비 불량에 의한 고장정지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전자설비 운전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개선 노력에도 주력하여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전자설비의 동작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켰다.

〈표 4〉 '94년도 종사자의 방사선량

(단위: 맨·렘/년)

구 분	운전기수	방사선량		증 감
		계 획	실 적	
고리 1 발전소	2	451	323	-118
고리 2 발전소	2	200	177	- 23
월성원자력	1	215	278	+ 63
영광원자력	2	113	126	+ 13
울진원자력	2	258	180	- 78
계	9	1,237	1,094	-143

에서 1994년 200시간으로 감소하였고, 전당 정지시간에 있어서도 1989년의 99.7시간/건에서 1994년도에는 25시간/건으로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는 신속한 원인분석체계 운영 및 긴급복구능력 향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사선 안전관리**

〈표 5〉 세계 원전 평균과 국내 원전 집단선량 비교

(단위: man-rem/호기)

구 분	'88	'89	'90	'91	'92	'93	'94
국내원전평균	231	165	165	91	128	117	122
세계원전평균 (PWR 기준)	280	252	176	172	174	110	-
미 국	278	226	273	189	193	193	-

근거자료: WAND Performance Indicator Report('93)

국내 원전의 종사자 방사선량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치인 5,000mrem/년·인을 국내 법정규제치로 채택하고, 발전소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관리 기준치로 4,000mrem/년·인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 계획예방정비 실적('94년도 실적)

구 분	정비기간	일 수	특기사항
고리 #1	'94. 7. 15~'94. 9. 13	61	저압터빈 블레이드 정밀검사 실시
고리 #2	'94. 11. 17~'94. 12. 31	45	저압터빈 블레이드 정밀검사 실시
고리 #3	'94. 3. 7~'94. 5. 14	69	원자로 하부 UT 및 저압터빈로타 검사
고리 #4	'94. 12. 8~'94. 12. 31	23	저압터빈 블레이드 정밀검사 실시
월성 #1	'94. 1. 24~'94. 3. 26	62	핵연료 압력관 검사
영광 #1	-	-	-
영광 #2	'94. 5. 10~'94. 6. 23	45	18개월 잠주기연료 장전
울진 #1	'94. 1. 5~'94. 3. 7	62	증기발생기 Shot-Peening
울진 #2	'94. 9. 8~'94. 11. 6	60	증기발생기 Shot-Peening
합 계		427	

작년도의 원전별 방사선량은 고리 1 발전소가 323만·렘, 고리 2 발전소가 177만·렘, 월성원자력이 278만·렘, 영광원자력이 126 만·렘, 울진원자력이 180만·렘으로써 호기당 평균 방사선량은 122만·렘으로 선진국과 세계 원전 평균치인 110만·렘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인적실수에 의한 고장정지 예방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3기의 모의훈련설비(Simulator)를 이용하여 국내의 정지사례 모의실습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원의 비상, 비정상상태 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한 인적요인에 의한 정지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인적행위 개선프로그램(K-HPES) 개발에 착수하여 1994년부터 시범 적용 중이다. 고장정지 시간은 89년의 1,296 시간

이는 월성원전의 경우 핵연료 압력관 교체물량 증가 등에 기인하였으나, 피폭선량 저감화를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운전방법 개선조치, 미세여과재 사용 등을 전 원전에 확대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증기발생기 튜브 검사와 같은 고방사선 작업시 신장비도 도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작업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계속 줄여나가고 방사선량 저감화 프로그램(ALARA)을 지속

〈표 7〉 외부기관 수탁교육실적

수탁기관	인원(명)	교육내용
원자력연구소	17	모의제어훈련설비 특별교육
한전기공(주)	89	원자력계통교육 등
삼창(주)	53	제어봉 제어지시 전문반 등
한중 등	32	원자력기초반 등
합계	191	

〈표 8〉 지역자원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홍보사업	계
고리	818	796	338	59	2,012
영광	634	1,719	407	46	2,806
월성	769	854	397	46	2,066
울진	595	1,074	431	46	2,146
계	2,816	4,443	1,574	197	9,030

적으로 추진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계획예방정비**

계획예방정비의 품질확보는 운전중 설비신뢰성을 제고하고 고장정지 및 출력감발 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1994년도에는 계획예방정비의 품질확보를 위해 기존의 체제 및 제도를 개선한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계획예방정비 작업시 계획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작업결과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작업품질 향상을 기하였다.

작업에 임해서는 공정관리 개선을 위해 한전기공(주)에 공정관리업무를 위임함으로써 공정계획과 실제 시공을 일치시켜 철저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공정관리회의체를 운영하여 공사지연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거하고, 정비공정을 세분화하여 철저한 공정관리가 되도록 힘썼다.

작업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중 정비범위를 확대하여 계획정비작업량을 최소화 하고, 정비시 기기단위정비(Block Maintenance)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정비기간 단축과 정비품질을 향상시켰고 정비요원에 대한 교대근무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다각적 노력으로 1994년도의 계획예방정비공사는 전원전이 계획공기 476일보다 49일 단축된 427

일만에 완료하여 공기단축에 의한 공급능력 증대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발전소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인적실수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작년에는 원자력연구소에서 3,285명,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전문기관에서 316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미국 및 캐나다 등 선진국에도 43명을 파견하여 신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특히 운전원에 대해서는 전문기술 교육 외에 가나안농군학교 및 송광사에서 심성교육을 특별히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통한 인적실수 예방에도 노력하였다.

운전원 교대근무제도가 과거 5조 3교대에서 6조 3교대 체제로 정착되면서 교육조의 철저한 교육이수 및 근무조의 안전운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자력기술인력의 저변확대 차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외부기관 원자력요원 191명에 대한 훈련도 연구원 수탁과정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운영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미국원자력발전협회(INPO), 세계원전사업자협의회(WANO), 프라마 틱설계 발전소그룹(FROG) 및 캐나다 중수형 발전소그룹(COG) 등 기체결되어 있는 각종 해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환 등 협력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으며

각 원전별로 선정되어 있는 우수 원전과 기술협력체제 정착에 노력하였다.

기술자립단계에 있는 국내 원전 운영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국 광동원전 기술지원 용역계약 수행을 위해 11명의 기술진이 현지에 파견 근무중이며 1994년도 한해동안의 용역수주 대가 140만달러로 국내기술의 해외 진출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이로써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사업 사상 첫번째로 해외사업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주요 지원용역 내용으로는 설비개조 기술지원과 설계비교 검토, 정비지원을 포함한 현장 상주 기술지원과 국내에서 절차서 개발 제공 등의 기술지원과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진 파견 등의 용역지원을 수행중이다.

나아가 필리핀이나 터키 등의 원전 운영 사업에도 진출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원전기술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세계적 관심속에 협상 진행중인 북한경수로 지원사업에 대비한 제도적, 기술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민족문화 교류의 주역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이 자못 기대되고 있다.

### 지역협력

원전 주변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지원금액 상한선이 전기판매 수입의 0.3%에서 0.5%로 인상됨에 따라 원전 부지당 지원금액이 종래의 10억

원 정도에서 20억원 정도로 2배 정도 인상 지급되게 되었다.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장학사업 등에 투자되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공존공영의식 제고에 노력하였다.

각 원전지역별 지원금액은 고리원전에 20억1천만원, 월성원전에 20억7천만원, 영광원전에 28억6백만원, 울진원전에 21억 5천만원 등 총 90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장학기금 출연 등 육영사업을 위해 15억7천만원을 배정해 주변지역 자녀들의 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원전 주변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을 불식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리, 월성, 영광, 울진원전 주변에서 생산된 쌀 약 1만 9천포(5억4천만원 상당)를 구내식당 및 한전가족이 구매하였으며, 사내구판장에 원전 주변지역 특산물 코너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미역, 김, 고추, 굴비 등 주변지역 특산물 판매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발전 운전원 현지채용을 추진하여 61명을 신규채용하였다.

### 맺음말

값싸고 질 좋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계

획예방정비기간의 조정, 정비기간의 단축 등 공급능력 증대와 고장정지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중국 광동 원전 기술인력 지원 등 1994년은 원전기술 수출의 원년의 해로 원전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데 성공적인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비율이 안정적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용량 설비로서 국내 전력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비중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1995년도에도 한주기무고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계획예방정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다음 계획예방정비까지 무고장 운전을 목표로 정비 품질기준을 설정, 단계별로 확인하는 제도와 평가 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원전운영에 있어 창의적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혁자세로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다.

원전사업의 세계화를 향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전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써 국내에서의 원전으로 그치지 않고, 전세계의 선두를 지켜나갈 원전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더 안전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되도록 전력 투구할 예정이다. ☼